

News

중간배당·분기배당...하반기' 금융주 공격적 추가배당' 나온다

머니투데이

금융지주들은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거나 재원을 확보. 추가 배당을 위한 준비를 마치며 배당 자체 권고가 종료되는 6월말 이후 중간배당이나 분기배당을 예고. 25~26일 열린 주총에서 4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금융)는 일제히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을 강조

3월들어 5대은행 신용대출 4100억 증가 그쳐...'빚투' 수요 시들

뉴스1

지난 25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35조5967억원으로 집계. 지난 2월말 135조1840억원과 비교해 4124억원 늘었다. 신용대출 흐름은 최근 주식시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대출 증가세가 둔화한 것은 올해 들어 주식시장 조정 장세가 계속되면서 빚투 수요가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금소법 시행에...너도나도 "소비자 보호" 법안 쏟아내는 국회

파이낸셜뉴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지난 25일 시행된 가운데 금융 소비자 권리 강화하는 '소비자가 왕이다(?)' 식 법 개정안도 잇따르고 있다. 그 중 여당 백혜련 의원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부계약 체결 전 청약철회권이 미포함되거나 개정안에는 계약체결 전 제공해 소비자의 알권리 제고.

지점 보유 의미 없다...부동산 내다 파는 은행들

조선비즈

NH농협은행이 110억원(최저 입찰가 기준) 규모의 점포 매각에 나섰다. 농협은행뿐만 아니라 하나은행, KB국민은행 등도 이미 올해 들어 부동산 300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올해 부동산 매각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인 만큼 매각 적기인데다,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중은행들이 몸집 줄이기를 지속적으로 시도

정비업계, 자동차보험서 정비료 올려달라...보험료 인상되나

아이뉴스24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으로 한숨을 돌린 손해보험사들이 다시 고민에 빠졌다. 자동차 정비업계는 정비료금 8.2% 인상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 업계에서는 정비업계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2~5% 가량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NH證 "옵티머스 '다자배상' 시 적극 배상"…금감원에 역제안

뉴스1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금융감독원에 '다자배상안'을 제안. NH투자증권은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 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과 연대책임을 지는 다자배상안을 받아줄 경우 전액배상에 가깝게 최대한 배상을 하겠다는 방침

보험업계, 심사 까다로워진 배타적사용권 신청 '봇물'

아주경제

배타적사용권이란 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 판매 권리를 부여. 이를 부여받게 되면 3개월 ~ 1년간 다른 보험사는 비슷한 상품 판매가 금지. 올해 배타적사용권 신청건수는 1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1% 급등. 생보사 중에서 미래에셋생명, 한화생명, 삼성생명 등 3곳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해 전년 동기 보다 3배 증가

음주운전 사고 보험처리 못 받는다

동아일보

국토교통부는 28일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어도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 이에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는 물론 마약을 복용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보험 가입자가 물어내야 한다.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